

## 안식과 피난처(시 62:1-12)

### ▶ 삶 나누기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과 함께 말씀을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봅시다

#### ▶ 말씀 들어가기

**들어가는 말:** 하나님은 인생의 폭풍이 불 때 피난처에서 안식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예기치 않았던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과 광풍은 아주 거센 바람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무섭게 일어나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다윗은 가끔 폭풍과 광풍을 만나 흔들리곤 했습니다. 피난처는 폭풍과 광풍을 피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 1.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자주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렇다면 피난처는 어떤 곳일까요?

- 1) 피난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전한 곳입니다.
- 2) 피난처는 잠시 피하여 숨는 은밀한 곳입니다.
- 3) 피난처는 안식하며 힘을 얻는 곳입니다. 믿음은 시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길 원하십니다.
- 4) 피난처는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곳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좌에서 내려 올 때 그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회복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 2.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다윗이 쓴 시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를 읽을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 지는 까닭은 그의 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피난처가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노래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 1) 예수님은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십니다.
- 2) 예수님은 그의 손 그늘 아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자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 3) 예수님은 마른 땅에 흐르는 냇물처럼 우리를 만족케 하십니다.

#### **나가는 말:** 탁월하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예수님은 탁월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 그의 탁월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에도 탁월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곳은 십자가의 그늘입니다. 그곳에는 우리 죄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은 안전합니다. 영원히 안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담당해 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 놓고 안식하십시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 말씀 나누기

1. 지난 설교를 통하여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나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은혜가 있으시면 나누어 봅시다. 당시의 쫓기는 상황과 예수님의 피난처 되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봅시다.
3. 지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기도하기

1. (말씀 적용) 재 축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 목장 되도록...
2. (2017 년 비전) 안식과 배움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3.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 지도록...
4.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5. 터기 단기 선교팀을 위해 또는 목원 서로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 지도록...

**384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E. J. Crosby, 1893  
 보통으로 ♩ = 88  
 ALL THE WAY: 8.7.8.7.D.  
 R. Lowry, 1875



1. 나의 갈 길 다 가 도 록 예 수 인 도 하시 니  
 2. 나의 갈 길 다 가 도 록 예 수 인 도 하시 니  
 3. 나의 갈 길 다 가 도 록 예 수 인 도 하시 니

내 주 안 에 있 는 긍 흘 이 쟈 의 심 하 리 요  
 이 러 운 일 당 한 때 도 족 한 은 혜 주 시 네  
 그 의 사 랑 어 쟈 큰 지 말 로 할 수 없 도 다

믿 음 으 로 사 는 자 는 하 늘 위 로 받 겠 네  
 나 는 심 히 고 난 하 고 영 혼 매 우 같 하 나  
 성 령 감 화 받 은 영 혼 하 늘 나 라 갈 때 에

무 슌 일 을 만 나 든 지 만 사 형 통 하 리 라  
 나 의 앞 에 반 석 에 서 생 물 나 게 하 시 네  
 영 영 부 를 나 의 찬 송 예 수 인 도 하 셧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

(통 460)  
 은혜의 사랑  
 T. Sasao, 1897  
 여호와의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삼상 7:12)  
 크신 은혜: 8.7.8.7.D.  
 박재훈, 1967



1. 지 금 까 지 지 내 온 것 주 의 크 신 은 혜 라  
 2. 몸 도 말 도 연 약 하 나 새 힘 받 아 살 았 네  
 3. 주 님 다 시 비 울 날 이 날 로 날 로 다 가 와

한 이 없 는 주 의 사 랑 어 쟈 이 루 말 하 라  
 무 거 운 짐 주 께 말 겨 벉 을 날 도 멸 잠

자 나 깨 나 주 의 손 이 항 상 살 껴 주 시 고  
 사 랑 없 는 거 리 에 나 험 한 산 길 헤 땀 때 가  
 나 를 위 해 에 비 하 신 고 향 집 에 돌 아 가

모 든 일 을 주 안 에 서 형 통 하 게 하 시 네  
 주 의 손 을 주 께 잡 고 서 영 찬 원 토 록 살 리 라